

서울市内 一部 老人들의 疏外程度에 關한 調查研究

金 幸 子

高麗大學校 大學院 看護學科

<지도: 洪 麗 信 교수>

目 次

I. 緒 論

- A. 研究의 必要性
- B. 研究의 目的
- C. 問題의 提示
- D. 假 說
- E. 用語의 定義
- F. 研究의 制限點

II. 文獻考察

- A. 身體的인 고립과 노인의 소외
- B. 人間關係와 노인의 소외
- C. 자아기대감의 불만족과 노인의 소외

III. 調查方法

- A. 調查對象 및 標集方法
- B. 調查도구
- C. 資料의 處理方法

IV. 調查成績

V. 論議 및 結論

- A. 論 議
- B. 結 論

參考文獻

영문초록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문명

과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장되고 있다. 선진국인 美國, 스웨덴 등의 노인인구는 전체국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도 70세 이상을 보여 주고 있다¹⁾.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1970년도 현재 평균 65세로 10년전의 56세보다 9세나 연장되었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총인구중 3.3%인 1,039,000명이 이르러 10년 후엔 전인구의 6.9% 정도로 현재에 비해 배증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²⁾.

이와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학, 간호학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³⁾고 Brunner 등은 말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들은 노화현상과 약화된 저항력때문에 질병에 걸리기 쉬워 65세 이상의 노인중 75%가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만성적 질환에 걸려 있다⁴⁾고한다. 曁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양노원 재소자(65세 이상) 중 40%가 정신 및 신경계 질환을 비롯한 고혈압 환자로 밝혀졌다⁵⁾.

이러한 사실들은 Frenay가 “오늘날 인구중 노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간호원의 교육과정 중 노인환자 간호를 위한 준비가 긴급히 요청된다”⁶⁾고 역설했듯이 노인간호는 간호학 분야에서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Campbell은 간호원들이 노인환자보다 젊은 환자들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과 함께 간호원의 연령, 그들이 노인과 접촉한 경험, 취업하는 기관 등 요건과 간호원이 좋아하는 연령간에는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⁷⁾

1) U. N. 인구통계연감, 1970.

2) 경제기획원, 1970년 인구센서스 종합분석보고서, 대한민국 통계기획원 조사통제국, 1970, p. 11.

3) Brunner 의 3인, Medical-Surgical Nursing, New York; Lippincott, 1970, p. 43.

4) Ibid, p. 47.

5) 禹在杰, “우리나라 양노원 운영에 대한 조사” 공중보건 잡지 Vol. 10, No. 1, June, 1973, p. 81.

6) Agnes Clare Frenay, “Helping students work with the aging,” Nursing Outlook, Vol. 16, No. 7, July, 1968, p. 44.

7) Margaret Eleanor Campbell,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Vol. 20, No. 2, Feb., 1971, p. 147.

노인에게는 다른 연령 그룹과 상이한 신체적, 사회 심리적 특징이 있으며 이에 연유하는 그들 특유의 요구가 따르게 된다. 종래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유교의 영향을 받아 대단히 높았다 하겠다. 특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敬老思想으로 가정생활이 현대 가정에 있어서는 부부 중심 또는 子女 위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은는 사실상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가족구성 형태가 바뀌어감에 따라 한 가정의 가부장적 혹은 연장자로서 차지하던 노인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권위와 영향권의 상실은 서구문물의 도입, 고전적 윤리와 도덕관의 붕괴, 세대 교체론의 대두 등 급변하는 주변 여건과 더불어 가속화(加速化)되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고독한 노인들을 낳게하는 심각한 문제로 직면되었다⁸ 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심리, 사회, 생리적 양상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 과정에 있어서나 간호원을 위한 참고자료 등은 노인 환자 간호에 대해 극히 제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⁹. 그러므로 老人看護의 질적수준의 向上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요구와 발생 경위를 규명함이 노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첩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B. 研究의 目的

본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노인 간호의 문제중에서도 특히 社會心理的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있는 소외문제와 관련하여 소외상황을 신체적인 고통, 의미있는 인간 관계의 결여, 자아 기대감의 불만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소외의 정도를 ① 性別, ② 家族構造, ③ 社會參與 如否, ④ 經濟力 등에 의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노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과 동시에 노인간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으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C. 문제 的 제시

첫째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남자들의 생활영역이 젊었을때에 주로 가정밖이었다가 가정내로 들어오

게 되는데 반하여 여자는 젊었을때나 노인이 되어서나 가정내에서 역할의 변화를 별로 볼수없고 또한 남자는 지배적인 성격상의 특성을 갖고있으나 여자는 종속적인 성격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노인의 소외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성별의 차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둘째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핵가족제도는 젊은부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늙은 부모를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노인들은 자연히 고독을 느끼게 된다¹⁰ 는 밖의 이론에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셋째 O'Reilley는 고독한 노인들이나 불행한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종교적 활동이 적었다¹¹ 고 밝힌점에서 종교의 有無에 따른 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종교유무에서 오는 차이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넷째 노인들은 사회활동의 약화와 노화현상으로 경제적인 실권을 상실하게 되어 부양해 오던 가족들로부터 부양받아야하는 위치로 바뀌게 됨으로써 심리적 갈등, 불안과 함께 상당히 큰 소외를 느낀다는 어린이회관 교양부의 조사보고¹²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제력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다섯째 깊은 노인을 위한 클럽활동에 그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소외감을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¹³ 고 말한점에 근거를 두어 사회활동에의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D. 가 설

- 가설 1.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을 것이다.
- 가설 2.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소외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무배우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소외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4. 비종교인은 종교인에 비해 소외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5. 자신의 경제력에 반비례해서 소외의 정도는

8) 하상탁,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문교부 학술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1972: p. 26.

9) Dorothy V. Moses 외 1인 "Geriatrics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Curriculum", Nursing Outlook, Vol. 16, No. 7, July, 1968, p. 43.

10) 박동일, "노인정신 건강", 의학신보, 201호, April 30, 1973.

11) Justin Pikunas, Human development: a Science of Growth, New York; McGraw-Hill Co., 1969, p. 379.

12) 어린이회관 교양부 "노인들의 용문에 관한 조사(노인들 문제연구 시리즈 1)", 1973, p. 2.

13) 김승국, 간호심리학, 서울; 공신문화사, 1972. p. 84.

높을 것이다.
 가설 6. 사회참여도와 반비례하여 소외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E. 用語의 定義

1. 老人: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획일적으로 연령만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은퇴시기를 놓고 많은 나라에서 65세 이상을 노령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⁴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본연구에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외(疏外): 인간은 의미있는 관계 속에 존재할 때 증축된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 인간이 외적으로는 사회로부터 내적으로는 자신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이탈되고 고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절상태를 소외되었다고 말한다.

즉 인간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말은 개인이 신체적으로 고립, 고독, 疏遠, 공허 등의 상태에 있어 진정한 느낌과 행위를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진정한 自我와의 접촉이 단절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Moustakas나 May 등은 그들의 저서에서 서술하고 있다.^{15, 16}

F. 연구의 제한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소외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의 성격적 특성이나 건강상태 또는 살아온 배경 등에 비추어 개개인에 대한 계속적인 접촉과 관찰을 통해서 장기적인 조사가 따라야만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 및 편의상의 제약 등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1. 표집대상은 서울시내에 살고있는 협조가능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한정하였다.
2. 표집은 무작위추출법(Randomization)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지역을 대표할 수도 없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3. 방문 취척법으로 장소, 환경 및 조사원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연구대상집단이 모집단에 비해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외정도 검사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에서 밝힌 상황을 토대로 하여 문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

II. 文獻考察

A. 신체적인 고립과 노인의 소외

노령의 Sign은 각종 감각의 예민성감소, 신체기관의 활동력 감퇴, 학습능력의 저하와 같은 심리적 변화, 기억력의 파괴와 정신적 능력의 감소, 신체조직의 생리학적 변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노인 각개인의 신체적 활동과 Stress에 견디는 능력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킨다¹⁷고 Cohen은 말했다. 김은 그의 저서에서 신체적인 에너지가 감소됨에 따라 시력과 청력이 약화되며 근육통정(筋肉統整)에 있어서의 변화는 기동성을 약화시키고 운동의 속도와 기민성을 약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들은 노인들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적인 관계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서술했다¹⁸. 그리고 신체능력의 제한에 의해 노인에게 여러가지 새로운 질제가 강요됨에 따라 노인의 경험세계는 좁아진다.

또한 노인이 되면 많은 것을 상실한다. 즉 아이들은 자라서 떠나가고 친구들은 사망하며 자신들은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게 된다. 은퇴는 가정내에서 역할의 변화와 사회적인 위치 및 경제력의 상실을 가져오고 또한 육체적 무능력으로 기동력을 상실하며 행동이 부자유하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 한 가족이 한곳에 모여 오래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대에는 노인들이 친숙한 이웃과 떨어져 다른 마을이나 아파트로 가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별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그 자신 가정환경 밖에 다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접촉과 경험의 기회를 줄여준다.

부업이나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창조적 생활을 하지못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에 있어서 이상에서 말한 변화들은 사기를 위축시키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가중시킨다. 노인들에게서 혼한 시력의 곤란 역시 그들에게 인쇄물을 통한 새로운 지식습득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지각능력이 감퇴되었을때 위축되는 경향은

14) Joshua Cohen, "Caring for the aged", W.H.O. Magazine, April, 1972. p.4.
 15) Clark Moustakas, Creativity and conformity, Princeton; Van Nostrand, Comp. Inc., 1967, p.13.
 16) Rollo May, Mans search for himself, New America Library, 1967, p.24.
 17) Joshua Cohen, Op. cit.
 18) 김승국, Op. cit.
 19) Justin Pikunas, Op. cit. p.373.
 20) Hary Louis Conti, "The loneliness of old age", Nurs'ng Outlook, Vol. 18. No.8, August, 1970, p.28.

더욱 심하다. 19, 20, 21, 22

추도 “핵가족화의 현상과 가족 및 친구 등의 상실에 의하여 고독감, 소외감을 갖게 되며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된다”²³고 말했다.

B. 인간관계와 노인의 소외

Moustakas 또는 May 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할때 의사소통이 안되어 공허하고 쓸쓸하고 무의미해지며 소외를 느끼게 된다²⁴ 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노인은 자연적으로 일반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즉 노인은 현대 사회생활에 있어 개방적이 못되고 자기 동료만의 집단을 구성하는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²⁵고 그는 보고하였다.

노인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젊은이들과 어울려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이야기하는데 큰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젊은이들과의 정보교환, 눈에 보이지않는 대결의식 등은 늙었다는 사실과 소외감을 어느정도 잊게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夫人이나 또는 男便의 사망으로 자신의 느낌과 두려움을 호소할 상대가 없어지고, 홀로 살면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괴팍한 성격을 갖게 되며 이 괴팍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욱 방해한다. 또는 무릎이나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것이 큰 병인 것처럼 생각하여 불평을 늘어놓는 태도 등은 가족이나 이웃 또는 친구들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²⁶ 고 Conti는 밝히고 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듣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청력의 결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상실시킨다. 더구나 반복적으로 자주하는 질문, 의아한 표정, 태만, 고집, 까다로운 성격 등은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큰 원인이 된다^{27 28}.

그러나 개인은 사회적 교제에 의해 풍부한 경험과 자극을 얻게 된다. 노인들의 경험영역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對人접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개인적 접촉은 또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걸려될 경우에는 점진적인 애정의 고갈 또는 어떤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정, 애정, 소속감, 지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는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근본적 요구의 좌절은 자연히 사회적 고립을 낳는다²⁹.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된 많은 노인들은 남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갈구하게 된다. 때로는 이러한 관심이나 애정을 얻어내기 위해 많은 노인들은 “Illness Game”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않으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할것으로 믿고 있다³⁰고 Davis는 말했다.

C. 자아기대감의 불만족과 노인의 소외

Hulicka는 모든 인간은 애정, 존속관념, 성공, 인정, 독립, 희망 및 특히 자존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³¹고 말했다. 노인들은 무엇이 공헌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환경적 제약과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동기의 결여로 무엇이 성공할기회가 크게 줄어들는다. 더구나 무능력해진 현재 성취한 정도는 무능해지기 이전의 수준에서 평가되기 쉬우므로 수준이하라고 他人에 의해 거부되기도 한다. 인간은 현재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만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많은 노인들은 비현실적인 회

21) Betty Lou Armacost, "Organizing a visiting service for the isolated elderly", Nursing Outlook, vol. 18. No. 8, August, 1970, p. 20.

22) Brunner의 3인, Op. cit., p. 45.

23) 이병윤, "노인의 정신의학적 문제", 대한노인병학회 학술대회, 1972년 10월 6일 p. 3

24) Clark Moustakas, Op. cit.

25) Rollo May, Op. cit.

26) 하상락, Op. cit. p. 53.

27) Hary Louis Conti, Op. cit., p. 29.

28) 전산초, 내외과 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1. p. 595.

29) Agnes Clare Frenay, Op. cit., p. 29.

30) Justin P: kunas, Op. cit., p. 379.

31) Robert W. Davis, "Psychologic Aspect of Geriatric Nursing" A. J. N., Vol. 18, No. 4, April, 1968, p. 802.

32) Irene M. Hulicka, "Forstoring self-respect in aged patient," A. J. N., Vol. 64, No. 3, March, 1964, p. 84.

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길고 외로우며, 음울하고 의미없는 삶을 끝맺으려는 생각을 갖기 쉽다³³고 Hulika는 말했다.

노인은 자기 현실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는 근심, 좌절감, 공포 그리고 무가치함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정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³⁴.李 등도 그들의 논문에서 “노인들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은 물론 가정으로부터까지 소외된 비생산적 인간이라는 비판적인 위치에서 자신감의 결핍으로 항상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³⁵”고 지적했다. Newton 등은 그의 저서에서 노인의 근본적 요구는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소속감의 요구인데 여기에서 소속감이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소속, 직업에 대한 소속, 타인에 대한 소속 등이며, 살 장소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안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활동을 갖길 원함이고 개인적인 인정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인정도 포함해야 한다³⁶고 서술했다. 金도 역시 그의 저서에서 노인들은 자신이 타인이거나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때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덜 느낀다³⁷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생활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생활의 만족과 의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Wilkiemeyer는 Alvin Goldfarb가 한 말을 인용하여 노인들에게는 간호를 잘 해주는 것 보다는 좀더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 가치있는 일³⁸이라고 하였다.

노인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져있기도 한다. 심하게는 슬픔과 우울증 기타 정신학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데 이 우울증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중 80%나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12%는 2년 이내에 자살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Frances는 밝혔다.

II. 조사방법

A.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양식에 의한 방

문 청구법을 통하여 1973年 8月 하순에서 9月 말까지 면담조사 하였다. 사전조사는 8월 25, 26일 양일간에 걸쳐 5명에 대해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상자 중에는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 양노원의 재소자 중에서 각각 30명씩 60명을 무작위 선정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으로써는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별 4개 노인회에서 남자 35명 여자 34명 도합 69명을 무작위 선정하였다. 기타 광범위한 사회계층에서 표본을 얻기 위해 조사원 20명에게서 1인당 4명씩을 임의 선정하게 한 81명이 포함되었다. 표집은 조사원 9명에게 면담방법을 사전 교육시켜 본 연구자와 함께 양노원과 노인회를 방문하여 면담 청구하고, 그의 9명을 포함한 20명의 조사원을 사전교육시킨 후에 각기 4명씩 임의로 선정된 노인들을 면담하여 청구자료를 얻었다. 이때 노인회에 참여하는 노인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조사원들에게 “노인들이 이와 똑같은 내용의 면담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지시켰다.

단, 언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노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B. 조사도구

본 연구자는 노인들이 갖는 소외상황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면마다 몇개의 문항을 만들어 측정도구를 작성하였다. (부록 참조)

첫째로 소외감이 신체적 고립에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8개의 문항을,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관계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올 수 있다는 점에서 12개의 문항을, 셋째로 자아기대감의 불만족으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10개의 문항을 각각 만들어 총 30개의 문항을, 가지고 면담결과를 해당하는 난에 표시하였고, 소외의 정도는 각 문항을 1점씩 계산하여 신체적인 면에서 8점 인간관계에서 12점 자아기대감에서 10점 총 30점으로 하여 각 개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아 본 연구자가 만들었으나 이론적 배경에 기초를 두었다.

33) *Ibid*, p. 85.

34) Pamela H. Dupuis, "Old is beautiful", *Nursing Outlook*, Vol. 18, No. 8, August, 1970, p. 26.

35) 이원용 외 1인, "한국인 가정노인과 시설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고려의대 잡지*, Vol. 9, No. 2, 1972, p. 261.

36) Kathleen Newton 외 1인, *Geriatric Nursing*, Saint Louis; The C.V. Mosby Co., 1966, p. 16.

37) 김승국, *Op. cit.*, p. 89.

38) Diana Wilkiemeyer, "Affection: key to care for the elderly", *A. J. N.*, Vol. 72, No. 12, Dec., 1972, p. 2166.

39) Frances Foland Gage, "Suicide in the aged", *A. J. N.*, Vol. 72, No. 12, Dec., 1972, p. 2153.

C. 자료의 처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인 각 개인의 소외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차의 검증을 위해서는 해당 사례수의 평균치와 노인의 성별, 가족구조별, 종교유무별, 경제 능력별, 사회참여 유무별에 따른 소외정도의 차이 意義度를 요비검증방법(Critical Ratio)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소외가 올 수 있는 3가지 면에서 지배적인 소외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각기 세부적인 차의 검증을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IV. 조사성적

수집된 자료를 각 가설별로 분석 검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를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표 1)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남녀별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부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인간관계면에서 $CR=4.74$ 로 $P < 0.01$ 유의수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소외정도를 보여주었고 그 이외의 면에서는 유의있는 차가 없었다.

2.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에서 소외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표 2)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노인과 동거하는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로 나타나 가설 2가 긍정되

표 1 성별로 본 소외정도

구	분	신 체 적 인 면		인 간 관 계 면		자 아 기 대 면		소외정도(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o.	101	109	101	109	101	109	101	109
	Mean	3.56	3.66	3.83	5.85	4.15	4.68	11.57	14.19
	S.D	1.40	1.70	2.54	3.59	1.97	2.21	4.05	6.19
비	고	CR=0.47 P>0.05		CR=**4.74 P<0.01		CR=1.84 P>0.05		CR=**3.66 P<0.01	

표 2 가족과 동거여부에 따른 소외정도

구	분	신 체 적 인 면		인 간 관 계 면		자 아 기 대 면		소외정도(전체)	
		별거	동거	별거	동거	별거	동거	별거	동거
	No.	91	119	91	119	91	119	91	119
	Mean	4.24	3.13	6.31	3.83	5.37	3.85	15.96	10.80
	S.D	1.66	1.25	3.87	2.16	2.01	1.81	5.92	3.66
비	고	CR=**5.34 P<0.01		CR=**5.56 P<0.01		CR=**5.67 P<0.01		CR=**7.31 P<0.01	

표 3 배우자 유무에 따른 소외정도

구	분	신 체 적 인 면		인 간 관 계 면		자 아 기 대 면		소외정도(전체)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No.	132	78	132	73	132	78	132	78
	Mean	3.85	3.09	5.20	4.19	4.87	3.57	13.91	10.74
	S.D	1.58	1.47	3.48	2.49	2.00	1.82	5.56	4.24
비	고	CR=**3.94 P<0.01		CR=**2.44 P<0.05		CR=**4.92 P<0.01		CR=**4.65 P<0.01	

었다.

3. 배우자 유무별로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표 3) 무배우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로 나타나 가설 3이 긍정되었다.

4. 宗教의 有無에 따른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표 4) 宗教人과 非宗教人 間에는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가 유의있는 차가없이 나타나 가설 4는 긍정되지 못했다.

소외가 올 수 있는 3가지 면에서도 역시 유의있는 차가 없었다.

표 4. 宗教의 유무에 따른 소외정도

구	분	신 체 적 인 면		인 간 관 계 면		자 아 기 대 면		소외정도(전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종 교								
	No.	134	76	134	76	134	76	134	76
	Mean	3.66	3.54	5.06	4.66	4.45	4.62	13.16	12.82
	S.D	1.58	1.51	3.40	3.03	2.01	2.08	5.68	4.87
비	교	CR=0.50		CR=0.88		CR=0.58		CR=0.46	
		P>0.05		P>0.05		P>0.05		P>0.05	

5.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표5) 경제력이 전혀 없는 노인과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마련해 쓸 정도의 수입을 가진 노인 및 경제력이 충분한 노인과의 소외정도는 $P < 0.01$ 수준에서 각각 유의있는 차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마련해서 쓸 정도의 수입을 가진 노인과 경제력이 충분한 노인과의 소외정도는 $P < 0.05$ 수준에서 역시 유의있는 차로 높게 나타나 가설 5는 긍정되었다.

6. 社會生活에 따른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표6) 社會活動에 참여하는 노인보다 참여하

표 5. 경제력에 따른 소외정도

구	분	신 체 적 인 면			인 간 관 계 면			자 아 기 대 면			소외정도(전체)		
		무 용돈정도	충분	충분	무 용돈정도	충분	충분	무 용돈정도	충분	충분	무 용돈정도	충분	충분
	경 제 력												
	No.	112	50	48	112	50	48	112	50	48	112	50	48
	Mean	3.98	3.02	2.56	5.48	4.10	3.15	5.00	3.75	3.04	14.46	10.88	8.74
	S.D	1.53	1.39	1.07	3.55	2.11	2.09	1.93	2.12	1.29	5.52	3.74	6.53
비	교	무—용돈 :			무—용돈 :			무—용돈 :			무—용돈 :		
		CR=**3.94 P<0.01			CR=**3.07 P<0.01			CR=**3.56 P<0.01			CR=**4.82 P<0.01		
		무—충분 :			무—충분 :			무—충분 :			무—충분 :		
		CR=**6.72 P<0.01			CR=**5.17 P<0.01			CR=**7.53 P<0.01			CR=**5.31 P<0.01		
용돈—충분 :			용돈—충분 :			용돈—충분 :			용돈—충분 :				
CR=1.84 P>0.05			CR=*2.24 P<0.05			CR=*2.01 P<0.05			CR=*19.8 P<0.05				

표 6. 社會活動참여 여부에 따른 소외정도

구	분	신체적인 면		인간 관계면		자아기대면		소외정도(전체)	
		참 여	불참여	참 여	불참여	참 여	불참여	참 여	불참여
	사회활동								
	No.	69	141	69	141	69	141	66	141
	Mean	2.91	3.96	3.80	5.46	3.53	4.96	10.29	14.33
	S.D	1.55	1.52	2.18	4.23	1.82	1.98	3.80	5.53
비	교	CR=**4.65		CR=**3.75		CR=**5.01		CR=**6.24	
		P<0.01		P<0.01		P<0.01		P<0.01	

지 않는 노인이 소외의 정도가 $P < 0.01$ 유의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6은 긍정되었다.

V. 論議 및 結論

A. 논 의

첫째 여자가 남자에 비해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외가 올 수 있는 3가지 상황중에서 人間關係에서 진정한 관계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느낄 수 있는 소외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郭의 身體生理學的인 능력의 상실, 개인 사회 및 경제적인 능력의 상실, 외모의 변화와 性的 능력의 상실 등을 경험함으로써 여자보다 남자가 좀더 심각한 소외문제를 갖는다⁴⁰고 말한 이론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이 전생애를 통하여 패쇄된 생활과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지 못하는 전통적인 생활 인습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소외된 생활을 하여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둘째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동거하지 않는 노인

에 비해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신체적, 인간 관계, 자아가 대면, 모두 $P < 0.01$ 유의 수준으로 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7에서 보면 독신으로 혼자사는 노인은 무배우자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나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하여, 또 부부만 사는 노인은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하여 모두 $P < 0.01$ 유의 수준에서 소외정도의 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별거하는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소외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더욱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기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노인과 젊은이간에 애정 있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가정내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신체적인 고립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신체적인 고립에서 올 수 있는 소외에 대해서는 부부만 동거하는 노인 일지라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높았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가

표 7. 가족구조에 따른 소외정도

구 분	신체적인 면				인간관계 면				자아기대 면				소외정도 (전체)			
	독신	부부	독신과 자녀	부부와 자녀	독신	부부	독신과 자녀	부부와 자녀	독신	부부	독신과 자녀	부부와 자녀	독신	부부	독신과 자녀	부부와 자녀
No.	62	29	70	49	62	29	70	49	62	29	70	49	62	29	70	49
Mean	4.45	2.33	3.14	3.12	6.57	4.22	3.59	4.18	5.52	4.00	4.10	3.49	16.55	10.56	10.81	10.78
S·D	1.58	1.05	1.16	1.42	3.90	2.90	1.93	2.41	1.91	2.11	1.81	1.75	5.75	4.60	3.25	4.1
비 고	독신-부 부 : CR=7.58 P<0.01				독신-부 부 : CR=3.21 P<0.01				독신-부 부 : CR=3.30 P<0.01				독신-부 부 : CR=5.37 P<0.03			
	독신-독신과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독신-독신과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독신-독신과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독신-독신과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CR=5.38 P<0.01		CR=5.45 P<0.01		CR=4.37 P<0.01		CR=6.94 P<0.01		CR=4.66 P<0.01		CR=3.96 P<0.01		CR=5.83 P<0.01		CR=6.12 P<0.01	
	독신-부부와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부부-독신과 자녀	
	CR=3.39 P<0.01		CR=1.08 P>0.05		CR=0.22 P<0.05		CR=0.27 P>0.05		부부-부부와 자녀		부부-부부와 자녀		부부-부부와 자녀		부부-부부와 자녀	
	CR=2.81 P<0.05		CR=0.06 P>0.05		CR=1.10 P>0.05		CR=0.21 P>0.05		독신과-부부와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독신과-부부와 자녀	
	CR=0.08 P>0.05		CR=1.42 P>0.05		CR=1.85 P>0.05		CR=0.04 P>0.05									

40) 파동일 : Op. cit.

41) 하상락 : Op. cit, P. 30~31.

42) 이원용 외 1인, Op. cit, P. 270

측 제도가 아직도 노인의 노후안정에 많이 공헌하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노후에는 자녀들과 동거하거나 이들에 의존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⁴¹는 점은 河의 논문과 일치한다. 또한 표 7에서 볼 때 독신 노인은 부부가 동거하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소외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혼자사는 노인들 대부분이 양노원에서 표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노인들은 정서면으로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고립적인 면을 나타냈다⁴²는 李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보겠다.

셋째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소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소외상황중 대인관계 문항에서 “가족중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 하루중 제일 많이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 78명중 58%에 해당하는 46명이 아내 혹은 남편이라고 응답했음을 볼 때 배우자끼리는 한 가정내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 보다 서로 이야기하는 상대로서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표 7을 볼 때 독신으로 사는 노인은 부부만 동거하는 노인, 무배우자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및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P < 0.01$ 유의 수준에서 소외정도의 차가 높게 나타났으나 무배우자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노인사이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배우자 노인들일지라도 자녀와 함께 살도록 해줌으로써 소외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문제해결 방안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로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文化圈속에 있던 佛敎나 儒敎는 물론 基督敎나 카톨릭敎 등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종교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 결과는 O'Reilly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섯째로 노인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소외의 정도는 수입이 없을수록 높았고 많을수록 낮았다. 용돈정도의 수입이 있는 노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보다 소외의 정도가 낮았으나 수입이 풍부한 노인보다는 높았다. 이와같은 사실은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지상태에 있어 수입이 전혀없는 노인들이 반수이상(53%)이었다는 점과, 어린이회관 교양부 집계에 의하면 70세이상 노인중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92%나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많은 수의 노인들이 경제력이 없음으로 해서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과 용돈정도의 수입이 있는 노인, 수입이 풍부한 노인 사이에는 $P < 0.01$ 유의 수준에서 차가 있었는데 용돈정도의 수입이 있는 노인과 수입이 풍부한 노인 사이에는 $P < 0.05$ 유의 수준에서 차가 있었다는 결과를 볼 때 노인들은 극히 적은 수입이지만 무능력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섯째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은 참여하는 노인들 보다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이야기하면서 심심풀이로 경노당이나 노인회에 참여하여 시간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한 놀이등을 하며 소외를 해소시키기도 하고 또는 방법대원, 마을청소, 어려운 일 출신수법 등 남에게 공헌하므로 인정을 받고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느낌과 남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소외를 덜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

B. 결 론

본 연구는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대의 추세에 따라 노인간호의 문제중에서도 특히 社會心理的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소외문제와 관련하여 소외상황을 성별, 가족구조, 종교유무, 경제력 및 사회참여 여부등에 의하여 규명함으로써 소외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를 밝혀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간호에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으려 함에 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210명을 표집하여 설문지 양식에 의한 방문청취법에 의해 조사연구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남자와 여자가 $CR = 3.66$ 으로써 $P < 0.01$ 유의수준에서 차를 나타내어 가설 1은 부정되어 남자보다 여자가 소외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냈다.

2.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동거하지않는 노인간에는 $CR = 7.31$ 으로써 $P < 0.01$ 유의 수준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소외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어 가설 2가 긍정되었다.

3.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간에는 $CR = 4.65$ 으로써 $P < 0.01$ 유의수준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소외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어 가설 3은 긍정되었다.

4.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는 $CR=0.46$ 으로써 $P>0.05$ 유의수준에서 소외 정도의 차가 없어 가설 4는 부정되었다.

5.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서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과 자신의 용돈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노인간에는 $CR=4.82$ 로써 $P<0.01$ 유의수준에서 차를 보여 주었으며, 수입이 전혀없는 노인과 경제력이 충분한 노인간에는 $CR=7.53$ 으로 $P<0.01$ 유의수준에서 차를 보여주었고 자신의 용돈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노인과 자신의 경제력이 충분한 노인간에는 $CR=1.98$ 로써 $P<0.05$ 유의수준에서 차를 보여 주어 경제력에 반비례하여 소외의 정도가 높다는 가설 5는 긍정되었다.

6. 노인이 갖는 소외의 정도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간에는 $CR=6.24$ 로써 $P<0.01$ 유의수준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 비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이 소외의 정도의 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긍정되었다.

參 考 文 獻

1. 經濟企劃院, 1970年 人口센서스 綜合分析報告,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0. p.11.
2. 郭東日: "老人 정신건강", 의학신보, 201호, 1973. 4월 30일.
3. 김승국: 看護心理學, 서울; 공신문화사, 1972.
4. 어린이회관 교양부, "老人들의 용돈에 관한 조사(老人들 연구문제 시리즈 1)", 1973.
5. 禹在杰: "우리나라 養老院 운영에 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Vol. 10, No.1, June, 1973. p.81~87.
6. 李丙允: "老人의 精神醫學的問題", 大韓老人病學會 집포지음, 1972, 12월 9일.
7. 李元鎔, 宋南玉: "韓國人 家庭老人과 施設老人의 精神健康에 대한 比較研究", 高麗醫大잡지, Vol. 9, No.2, 1972, p.259~271.
8. 田山草: 內外科看護學, 서울; 수문사, 1971.
9. 河相洛: "家庭 및 社會에 있어 老人의 地位 및 權威의 變遷", 文敎部 學術研究報告書,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1972.
10. Armacost, B.L., "Organizing a Visiting Service for the Isolated Elderly". Nursing Outlook, Vol. 18, No.8, August, P.20~23.
11. Brunner, L. S., C.P. Emerson, L.K. Ferguson and D.S. Suddarth, Medical-Surgical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1970.
12. Campbell, M.E.,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Vol. 20, No.2, Feb., 1971, p. 147~151.
13. Cohen, J., "Caring for the aged", W.H.O. magazine, April, 1972, p.4~9.
14. Conti, M. L., "The loneliness of old age", Nursing Outlook, Vol. 18, No. 8, August, 1970. p. 28~30.
15. Davis, R.W., "Psychologic Aspects of Geriatric Nursing", A.J.N., Vol. 68, No.4, April 1968, p. 802~804.
16. Dupuis, P.H., "Old is beautiful", Nursing Outlook, Vol. 18, No. 8, August, 1970, p. 25~27.
17. Frenay, A.C., "Helping Students work with the aging", Nursing Outlook, Vol. 16, No. 7, July, 1968, p. 44~46.
18. Gage, F.B., "Suicide in the aged", A.J.N., Vol. 72, No. 12, Dec., 1972, p.2152~2154.
19. Hulicka, I.M., "Fostering Self-respect in aged patients", A.J.N. Vol. 64, No.3, March, 1964, p. 84~89.
20. May R., Mans Search for himself, New American Library, 1967.
21. Moses, D.V. and Carolyn S.Lake, "Geriatrics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Curriculum", Nursing Outlook, Vol. 16, No.7, July' 1968. p.41~43.
22. Moustakas, C., Creativity and conformity, Princeton; Van Nostrand Co. Inc., 1967.
23. Newton, K. and H.C. Anderson, Geriatric Nursing, Saint Louis; The C. V. Mosby Co., 1966.
24. Pikunas J., Human Development: a science of growth, New York; McGraw Hill Co., 1969.
25. U.N. 人口統計年鑑, 1970.
26. Wilkiameyer D.S., "Affection: Key to care for the Elderly", A.J.N., Vol. 72, No. 12, Dec., 1972, p.2166~2168.

=Abstract=

**A Study on The Extent of Alienation Revealed among
A Group of Aged People in Seoul City**

Haing Ja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Yeo Shin Hong, Professor>

A steady increase in the aged population poses a great challenge to nurses with their diversities of health care needs, especially of psychosocial nature, such as an alienation problems among the a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alienation problems among the aged in urban are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aged people.

In this study, the investigator has tried to identify causes of alienation in the aged, and to determine the extent of alienation in relation to sex, family structure, religion, economic statu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The survey was done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st part of August to the end of September 1973. After a day's training, 10 interviewers have interviewed 210 stratified random samples of people over the age of 65 residing in Seoul with the free-ended questionnaire prepared by the investigator. The result of the study was tested by Critical Ratio.

Following Hypothesis have guides formulation of the study:

- I. The extent of alienation in old man would be higher than in old woman.
- II.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ho live alone would be higher than those living with their family.
- III.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ho have no spouse would be higher than who live with their spouse.
- IV.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people without religious beliefs would be higher than the people with religious beliefs.
- V.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ould be higher in proportion to decreased level of their economic productivity.
- VI.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ho do not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the aged who actively participate.

The analytic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extent of alienation in woman was revealed higher than that of man by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1$ level. (CR=3.66)
Accordingly hypothesis I was denied.
2.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ho live alone was revealed higher than that of the aged who live with their family by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1$ level. (CR=7.31)

So hypothesis II was supported.

3. The extent of alienation of the aged who have no spouse was revealed higher than that of the aged who live with their spouse at the significant level of $P < 0.01$, $CR=4.65$)

Accordingly hypothesis III was supported.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tent of alienation between the people with and without religion.

Thus hypothesis IV was rejected.

5.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as found to be higher in proportion to decreased level of their economic ability.

- a. The aged with greatest income showed least alienation.
- b. The aged with no income had a greater extent of alienation than the aged with minimal income by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1$ level. ($CR=4.82$)
- c.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atest income group and the minimal income group was found to be less significant than the difference between minimal income group and the people without income.

Thus hypothesis V was positively supported.

6. The extent of alienation in the aged who do not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ged who actively participate. ($P < 0.01$, $CR=6.24$)

Accordingly hypothesis VI was supported.